

‘삼보리’ 클릭하면 귀가 즐겁다

(sambori.com)

전국에 장맛비가 촉촉히 내린 7월 1일 안산 천수사. 20여명의 청년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진행될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공개방송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불교 음악을 사랑하는 불자들. 노트북에 인터넷 선을 연결하고 마이크를 설치하는 등 생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다.

“마이크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공개방송의 사회를 맡은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공개방송 참석자들의 마이크 상태를 일일이 점검한다. 예상치 않은 고장으로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청취자들에게 공개방송 현장의 소리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2001년 7월 2일 피플475닷컴(www.people475.com)의 불교 음악감상실로 처음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지금은 독자적인 홈페이지(www.sambori.com)를 운영하며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천리안 대화방, 타이젠 지혜바둑동호회와 함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실시간으로 불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불교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동호회 운영자인 박규수 숙명여대 강사, 금요일은 지허 스님, 토요일은 인천 월원사 보문 스님이 각각 진행을 맡아 대화방에 들어오는 청취자들과 함께 쌍방향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방송을 하고 있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이외에도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장의 알기 쉬운 교리강좌, 대원불교대학 최봉수 교수의 불교 인문강좌, 무비 스님의 <금강경> <천수경> <유마경> <지장경> 강좌 등 다수의 불교 강좌도 서비스 하고 있다.

9시 정각 오프닝 시그널 뮤직과 함께 진행된 공개방송. 진행을 맡은 지허, 보문 스님과 박규수씨는 천수사 범우 스님 등 공개 방송에 동참한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며 공개방송의 시작을 알렸다.

잔잔하게 찬불가가 청취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9시 30분경 불교 경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무비 스님의 전화 인터뷰가 이어졌다. 무비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여러 방편을 통해 중생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특히 마른땅에 비가 스며들 듯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는 부처님나라가 앞으로도 감도 법문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인터넷 방송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맞아 공개방송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 5주년 공개방송에 참석한 불자들.

독자적인 홈페이지 운영, 찬불가 대중화에 앞장 월~금요일 쌍방향 대화방 진행... 강좌도 풍성 ‘연꽃의 소리’ 음반 회사 설립하고 보급에 매진

이날 공개방송에서는 대각사 장산 스님, 월정사 재부장 범상 스님,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 부산 BBS 지은아 아나운서 등이 전화 연결을 통해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운영자 박규수씨는 “인터넷이나 핸드폰 벨소리에 불교 음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찬불가를 통해 청장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불교음악감상실을 운영해 왔다”고 앞으로 많은 청취자 기대를 당부했다.

부처님나라 불교음악감상실은 찬불가

대중화를 위해 올해 ‘연꽃의 소리’라는 음반 회사를 설립하고 ‘패랭이꽃과 나그네’라는 앨범을 발매했다. 또한 좋은 벗 풍경소리, 범상 스님 음반 등 불교 음반 보급 운동에 나서고 있고 불교 관련 플래시, 블로그, 게시판, 카페 등의 배경음악 설치물 통한 찬불가 보급에도 매진하고 있다

보문 스님은 “찬불가 앨범은 판매량이 저조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반사에서조차도 앨범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며 “찬불가 보급은 청소년 포교 뿐만 아니라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 만큼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유선 전화 잘 쓰면 경비 절감

KT ‘그룹통화’ 데이콤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사찰·불교단체 기대

유선전화와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료를 인하고 있어 전화통화량이 많은 사찰, 불교 단체의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전화 사업자들은 기존 유선전화에 인터넷(IP) 망

을 이용해 통화연결을, 발신번호표시, 문자메시지, 게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최근 전화기 교체 없이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저장된 주소록을 지정해 전화를 걸면 그룹통화가 가능한 ‘비즈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야 해야 하는 기업,

단체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통화연결을 서비스를 비롯해 마지막 걸려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주는 자동 재호출, 상대방이 통화중일때 통화가 끝난 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재시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데이콤 역시 착신전환 서비스를 비롯해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의 경우 법회, 기도 등의 공지사항을 일반 염서를 통해 하고 있지만 유선전화의 그룹 통화나 다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0

근원과 경로 방향 이해해야

빛의 원리

최근 출시되고 있는 6m 캠퍼더의 경우 광도를 자동으로 높여주어 조명 없이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조명 없이는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촬영시에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흔히 초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화면 전체가 붉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촬영된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조명에 대한 기술과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같은 장면이라도 조명의 위치와 색상 그리고 조도를 달리하면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본만 알고 있으면 보다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조명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빛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빛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사물의 고유한 색상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영상에 있어서 빛은 단순히 사물을 식별하는데 그치지 않고 빛 자체가 영상이 된다.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물감처럼 빛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인 셈이다. 촬영을 하는 사람은 빛이 피사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과 녹색 그리고 파란색을 말한다. 영상에서의 모든 색은 바로 이 삼원색의 배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빛은 크게 빛의 근원과 경로, 방향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빛의 근원은 자연광과 인공광으로 나뉜다. 오전 10

시경 또는 오후 4시경에 자연광이 좋아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연광이 장이나 틀을 통해 들어올 경우 조도 차이가 너무 커서 촬영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인공광은 인위적으로 빛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할로겐전구를 주로 사용한다. 자연광에 비해 인위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준다. 굳이 구분하자면 자연광은 실외에, 인공광은 실내에 가깝다고 하겠다.

빛의 이동 방향을 빛의 경로라고 하는데 굴절되거나 반사되지 않는 빛을 직사광이라 한다. 직사광은 강하고 폭 넓기 때문에 세밀한 묘사에 적합하여 영상 촬영시 대부분 사용한다. 반면 빛이 다른 물체에 부딪쳐 반사되는 빛을 반사광이라고 하는데 야외 촬영시 반사광을 이용해 피사체의 어두운 곳을 비출때 사용한다.

빛의 방향은 정면광과 측면광, 후면광과 직하광 그리고 상향광 등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면광은 정면으로 비추는 빛으로 지극히 평면적이어서 화면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측면광은 피사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피사체 옆으로 빛이 들어와 그림자가 생기게 되므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후면광은 역광이라고도 하며 피사체 뒤에서 비추는 빛을 말한다. 예를 작품 등을 촬영하기 위해 가끔 사용된다. 직하광은 피사체 바로 위에서 비추는 빛으로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 부자연스런 느낌을 준다. 상향광은 피사체의 아래쪽에서 비추는 빛으로 다분히 인공적이거나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서 종종 사용한다. 김두식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 mahamall.co.kr
상품문의: (02)732-1520



수행화-신욕바라밀

신제품으로 기존 욕바라밀 보다 밑창이 두꺼워 착용감이 월등히 편하며 밑창도 고급감으로 바퀴 미끄러움을 방지하였 습니다. 여름용으로 출시되어 시원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가격 : 40,000원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오머니반메흠福지갑

음악의 조화로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 (검정)
여성용銀나노 정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악의 조화로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시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오머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습니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친 오머니반메흠 복지갑은 일반 지갑과는 비교할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약사여래정화수약함

온갖질병의 고통을 소멸하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라




**건강회복을기원하는선물로!
연꽃처럼다시피어나는건강!**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하는 불광사에서 약사여래부처님의 약함을 제작해 점안불공과 백일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돼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고있는 환자들에게 큰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정화수약함은 순금99.9% 금니로 제작하고 약함내부는 온갖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장수하는 부처님 반장을 넣고 정화수약함 뚜껑에는 뱃속에 있는 악귀와잡귀를 물리치고 병고를 없애는 보발수진언을 넣었으며 뚜껑을 열면 정화수 잔이 들어있다.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영구히 사용할수있게 제작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리며 현재 투병중인 분께는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일간 특별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건강회복을 기원하는 뜻깊은 선물로 인가다.

가격135,000원(현금 또는 신용카드 분할가
규격: 높이 20cm×폭20cm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